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2년 2월

(제 40 호)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막 4:14)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주어진대로 살아가는 선교사의 살림살이와는 다르게,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점차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쿠션이 의자 수보다 많이 놓여져 있고, 재미있는 표정의 인형들이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구슬(Bead)로 만든 악세사리가 돌아 다니고, 천으로 된 꽃은 물론이고 가방과 필통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놓여 있어서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형편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물건들은 이곳에서 저희의 취향에 따라 새롭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제 아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그야말로 '땀의 결정체'들입니다. 지난날 이러한 것들을 별로 만들어 본적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지의 주부들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셔서, 기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다양한 소품들입니다.

그 어느 곳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두들 힘들어 하지만, 이곳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실업과 저임금으로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에는 5%의 상류층, 15%의 중산층, 그리고 80%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얻기도 힘든 이곳에도 법으로 규정한 최소 시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화로 시간당 약 80센트 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저임금의 직장도 찾지 못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인건비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고, 넘치는 잉여 인력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계속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린이와 학생 사역을 통해 이들의 어려운 삶을 가까이 보면서, 생활력이 강한 주부들에게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 지도록 간단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판매를 통하여 적은 수익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초기에는 해변 교회에 속한 여전도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이곳에 있는 구제 전문 선교 기관에서 좀더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품목도 다양해서 비싼 진주로 악세사리를 만드는 일부터 헌 옷을 이용하여 소품을 만드는 일까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수익이 될만한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 지갑과 가방을 완성한 후

그런데 주부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가르쳐 주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판매도 용이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이 선정이 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작 방법과 디자인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주부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견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는 더위 가운데 하루 일을 마치고 좀 쉬어야 하는데, 그때부터 제 아내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아내의 바느질 하는 모습을 별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시 정전이 된 이후에 촛불을 켜 놓고 바느질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사극 중에 나오는 한 장면과 같이 제법 운치도 있습니다. 비록 주부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저의 역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인형을 만드는 경우에는 인형 속을 채울 솜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영킨 솜을 제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풀어 헤치는 수고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코사지를 완성한 후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저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완전히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이 다른 곳을 찾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해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는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하여 소품을 처음 만들어 보는 어려운 형편의 주부들이 새롭게 구성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소녀의 모습을 벗어난 어린 주부로부터 많은 자녀로 인하여 몹시 지쳐있는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대로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제 아내의 섬김을 통하여 한량 없으신 주님의 긍휼이 저들의 지친 육신의 삶과 영을 온전히 적셔 주시기를 바라며, 저들이 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아직 교실벽이 완성되지 않은 곳에서 수업을 하는 모습

마침내 많은 기대와 관심 가운데 마띠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 년 전부터 교장 선생님께서부터 수차례 요청을 받아 왔지만, 그동안 적절한 시간을 찾지 못하고 또한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미루어 오다가, 드디어 이룸도 거창한 '한국어 학교'를 매주 토요일마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새로운 일이 없을 것같은 이곳에, '한국어 학교' 소식이 지역 신문 1면에 언급이 될 정도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띠 고등학교 내의 사역은 주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인사를 하며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지원한 학생이 132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 부부 둘이서 모든 학생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어 학교에 대한 이들의 기대와 필요는 모두 채워 줘야 하는데, 매주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런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지원한 학생 중에 40여명의 학생들이 이곳 학제에 따라 금년 3월에 졸업을 할 예정인데, 졸업 준비 관계로 토요 학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90여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은 저희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한국어 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이크와 스피커도 장만하고, 뒷자리에서도 보일 만한 크기의 한글 자음, 모음 차트도 인쇄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자료들도 직접 편집을 해서 복사해 놓고, 교안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사용할 필기 도구도 준비하고, 참여를 잘한 학생들에게 줄 막대 사탕도 사다 놓고,

.....

무엇보다도 한국어권에 살지 않는 소위 외국인에게 어떻게 생소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많은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는 한국어나 영어와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지 지금까지 언어를 배우거나, 가르쳐 본 것과는 사뭇 다른 준비가 필요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나는), 목적어 (빵을), 동사 (먹다)의 순이고, 영어로는 주어 (I), 동사 (Eat), 목적어 (Bread) 순인데, 이곳 현지어는 복잡하게도 동사 (Kaon), 주어 (Ako), 목적어 (Tinapay)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안을 준비하면서도, 언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알팍한 지식밖에 없는 저희로 인하여 도리어 한국어와 영어와 현지어가 마구 엉켜서 학생들을 더욱 더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수업이 예정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가지 사전 준비로 인하여 학교에 일찍 도착하였는데, 상당수의 학생들도 학교에 미리 나와서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고, 수업 준비가 잘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관습적인 이유로 예정된 시간에 시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내심 걱정을 했는데, 도리어 많은 학생들이 너무 일찍 모인 까닭에 예정에 없었던 즐거운 '노래 자랑' 시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생활 형편은 어렵지만, 참으로 밝고, 스스럼 없는 학생들의 성품이 너무도 보기가 좋아서, 저희로서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3개 국어가 섞인 첫 수업의 큰 부담을 덜어내는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처음 1시간은 모두 함께 모여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두번째 시간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원하는 학생들은 한국어로 된 찬양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두번째 그룹은 옆 교실에서 한국어로 된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언어를 경험 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프로그램이지만 출석 확인도 있고, 숙제도 있고, 개근상도 있고, 시험과 함께 성적 우수상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 전에 필리핀 노래를 부르는 모습

모두들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큰 소리로 생소한 글자를 익히고, 말하는 모습 가운데, 이들의 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낙후된 시골 고등 학교가 지역내에서 최초로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공부하는 학교로 관심과 부러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저희가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목표가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학생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지내면서 늘 아쉽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한가지는 저희 혼자가 아닌 다양한 주의 종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 더욱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복치고, 장구를 쳐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 저희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왜 이곳까지 보내셨을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옆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메마른 이 땅 끝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 8:10)**



한국어 열강 중

기도 요청

- 마띠 고등학교의 건축과 한국어 학교를 위하여
- 성령 충만을 위하여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흠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8,19)**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